

‘데이터창고’ 유통사, 금융사와 新 수익모델 발굴 나선다

GS리테일-신한카드

기업 대상 맞춤형 데이터 상품 개발
BGF리테일-KB국민카드
CU 점포별 맞춤형 운영 전략 지원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이 유통과 소비 데이터를 결합한 수익모델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GS리테일은 카드업계 취급고 1위 신한카드와 손잡고 업계 최초 유통과 카드 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 관련 수익 모델 발굴에 나섰다.

양사는 ▲유통과카드 소비 데이터가 결합한 데이터 개발 ▲수요 기업/기관 대상 맞춤형 데이터 결합 상품 개발 및 판매 ▲유통X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전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일평균 500만명 이상 고객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오른쪽)과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GS리테일



CU 빅데이터 활용 점포 컨설팅 /BGF리테일

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GS리테일의 국내 최대 규모 판매 데이터와 통합 회원수 2400만명의 업계 최대 신한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을 통한 유통X카드 데이터가 결합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련 데이터는 필요한 수요 기업에게는 안성맞춤 데이터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단순 판매 수량과 점유율 정보만을 보유했던 기업은 소비

가 이루어진 카드 데이터가 결합되어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사 고객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도 추가로 전개해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KB국민카드와 비즈니스 협업을 나섰다.

BGF리테일은 KB국민카드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의 월 단위 구동형 데

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 전국 1만 4000여 개 CU의 운영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별 점포마다 맞춤형 편의점 운영 전략을 지원할 수 있다.

양사는 이번 제휴가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니즈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고효율의 편의점 운영 전략을 도출하고 차별화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등 실생활에서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실제, CU는 월평균 약 1억 5000명의 고객들이 방문하는 소비채널로 융복합 시대의 빅데이터 창고로 불리며 최근 관련 비즈니스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최근 금융보안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CU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편의점 빅데이터를 유통 업계 최초로 금융데이터거래소(FinDX)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지역, 연령, 시간대, 상품별 매출 등 총 20여 개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다.

CU를 통해 생성되는 빅데이터들은 금융, 제조, IT, 이동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데이터들과 융합해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점차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편의점과 신한카드 이용 고객들에게 최적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비교>

/과기정통부

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처리절차	시험(지정시험기관)→심사→적합인증	시험(지정시험기관 등)→적합등록
처리기간	5일 이내	즉시
제출서류	6종	2종
수수료	16.5만원	5.5만원

오늘부터 IoT 융합기기 출시 절차 간소화

기업, 적합성평가 비용·부담 감소
무선모듈 제거·교체시 변경 신고
전파 인증, QR코드 표시 가능

방송통신기자재 출시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 적합성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인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해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이다.

정부는 우선,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인 스마트 가전제품, 착용 가능(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모듈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모듈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완제품별로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 신고로 간소화됨으로써 업체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의 경

우, 제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증·등록 표시를 하는 것에 더해 QR코드를 통해서도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는 많은 정보를 제품에 일일이 표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저전력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주로 가정·학교 등 한정된 장소에서 실습과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제품 특성상 전자파 영향이 크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전기·전동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 업체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나오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 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와 같은 조항을 최소화함으로써 모호성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전화기, 팩스 등 유선 단말장치 기기는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미 성숙된 기술임을 고려해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스타필드 코엑스몰, 증강현실로 길 찾는다

SKT, 미래형 유통매장 구축 협약
할인쿠폰 주요 지점별 AR 콘텐츠
화면서 매장 간판 클릭시 정보 확인

복잡한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프라퍼티, MAXST와 함께 5G MEC 기반 실감형 AR 콘텐츠 서비스 제공 및 미래형 유통매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사가 보유한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AR을 코엑스몰 등 플랫폼에 연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뜻을 같이해 마련됐다.

4사는 고객 집객 효과가 뛰어난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AR플랫폼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며, 내년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22년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일 AR플랫폼은 AR내비게이션 형태로 제공된다. 우선 이용자들이 서비스 지역 내에서 원하는 장소



MAXST 박재완 대표(왼쪽부터), 신세계아이앤씨 손정현 대표, 이창승 신세계프라퍼티 마케팅 담당, SK텔레콤 최관철 기업사업본부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텔레콤

나 대상을 검색하면 증강현실로 길 찾기 안내가 제공돼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주요 표지판의 다국어 언어변환 및 정보 시각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화면상 매장의 간판을 클릭하면 해당 매장의 상품정보 확인은 물론 관련 3D AR 콘텐츠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변 매장의 주력 상품, 프로모션 내용, 할인 쿠폰 주요 지점별 AR 콘텐츠도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제작

한 AR콘텐츠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된다.

각 사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5G AR 콘텐츠를 제공해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최첨단 미래형 유통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SKT는 이번 협력에 ▲5G MEC 역량 ▲5G 앱 서비스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술 ▲실감형 콘텐츠 플랫폼 인프라 등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AR 플랫폼의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인포뱅크, 개인투자조합 1호 IR 성료

총 6개 스타트업 선정

인포뱅크가 16일 개인투자조합 결성 이후 첫번째 투자라운드, 역삼동 이앤인베스트먼트에서 IR(기업설명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IR을 위해 벤처캐피탈 17개사를 초청했으며, 초청된 VC(벤처캐피탈)들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멘토링 및 투자유치의 기회가 제공됐다.

이번 투자 단계는 프리 시리즈A 및

시리즈A 단계로 진행되며, 개인투자조합 1호 기업을 중심으로 총 6개의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의미있는 매출 규모와 실적을 보유한 포트폴리오 기업들로 ▲3D 기술 기반의 Z세대 패션매거진 ‘에프앤에스홀딩스’ ▲10만명의 유튜브 데이터가 반영된 인공지능 AI 기반 인플루언서 검색엔진 ‘버즈앤비’ ▲메디컬 AI 전문 스타트업 ‘웨이센’ ▲글로벌 광고 최적화 플랫폼 ‘가제트팩토리’ ▲전기자동차 열관리 솔루션을



인포뱅크가 16일 개인투자조합 결성 이후 처음으로 역삼동 이앤인베스트먼트에서 IR(기업설명회) 행사를 개최했다. /인포뱅크

제공하는 ‘MH기술개발’ ▲개인별 맞춤형 기능성 갈창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 건강 전문 브랜드 ‘나인투스식스’ 등이 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